

“스님 108명에 치질 무료시술”

유옥현-김경재母子 “부처님 가피 회향” 발원

지금까지 입은 부처님 가피를 의뢰보시로 회향하겠다고 나선 모자(母子)부자가 있어 조계사 분규로 상처받은 불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울 영등포구 도유의과 의원 김경재 원장(37)과 김원장의 어머니 유옥현보살(63·주식회사 금토상사 대표이사).

김원장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치질로 고생하는 108명의 스님들에게 입원비나 수술비 등 치료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리겠다”며 “불우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

게도 무료로 치료해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유옥현보살도 “아들의 의료보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장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김원장은 지난 9월 병원을 열기까지 개업을 준비하면서 한동안 강화 보문사에서 기도를 했다. 병원건립과 직원을 구하는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지 않자 보문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스님들이 이상하리만큼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도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회에 봉

사하는 올곧은 불자의사가 될것을 다시 한번 서원했다. 그러자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됐다. 보문사 주지 항적스님은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 기도를 마칠 즈음 항적스님이 병원을 짓고 싶었다.

“도유(道遊), 수행하면 치료된다”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병원 이름을 받으면서 오랜 좌선생활로 인해 치질로 고생하는 스님들이 많다는 항적스님의 말씀을 떠올린 김원장은 자신의 전공과

목이 대장항문 계통이니만큼 이 분야에서 보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다.

주위에서 신심깊은 불자로 소문난 어머니 유보살은 아들의 결심을 전해 듣고는 무척이나 반가웠다.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반도체 장비 수출업체인 (주)금토상사의 대표이사인 유씨 역시 사업체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모두 부처님 가피라고 믿고 사회에 희망할 방법을 생각해오던 터였다. 유보살은 아들에게 “스님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과 장애인들도 무료로 치료해 주자”고 제안했고 김원장은 어머니 뜻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김원장은 어머니를 따라 월원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타행을 펼쳐가겠다는 유옥현(왼쪽) 보살과 김경재원장.

심원사, 정선 정암사, 구미 도리사 등 전국 각지의 사찰을 참배하며 불심을 키워왔다. 유보살 또한 사찰 참배는 물론 수행단체인 정묵회 유순회 회장과 함께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을 모시고 <금강경>과 <유조단경> 등 경전공

뉴스 & 뉴스

내달 28일 조계사 가사전시회

조계사(주지 지홍)는 당초 지난 10월 개최하기로 했다가 조계종 분규로 연기되었던 ‘가사 전시회’를 11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또 전시회 기간중인 12월4일에는 가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사는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시회 전까지 이번 행사에 전시되는 가사 사진과 설명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전시회 참가국 수와 가사 종류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15개 종단의 20여 종이다.

한명우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

충북불교호법위원회를 비롯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는 1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충북 종교인 선언’을 발표했다. 충북종교계는 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민족의 화해와 용서를 가로막고,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이다”며 “종교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새 천년의 미래를 위한 공동선이라는 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다.

이들위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충북의 각 지역에서 거리캠페인을 전개하고, 각 정당 지구당 방문, 종교발서명운동과 법회 및 기도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원우기자

화엄불교대 ‘꿈나무 교실’

화엄불교대학(학장 도영)은 20일 전주시 삼천2동 사무소에서 꿈나무 학습교실을 개강했다. 화엄불교대학 꿈나무 학습교실은 전주시 대학생자원봉사단의 후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방과후 학습 지도와 함께 취미생활을 지도하게 된다. 꿈나무 학습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열리며 수확 영예회화 미술실기 단소와 민요배우기 국어 글짓기 등을 가르친다.

김원우 기자

태태아기령 천도사경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은 9월 29일부터 한강 광나루 수상법당에서 봉행해왔던 제4회 태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가 19일 회향했다. 불교의 생명윤리사상의 확산과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아기가 영가와 부모의 평안을 위해 천도재를 지낸 이번 회향식에는 서울 신흥사 방생선원 사천왕사 길동 관음의 집 등에서 2백여 불자가 동참했다.

한명우 기자

대불련 서울지부 수계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이승철)은 27일 오후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청년불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원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실천불교 청년불자로 거듭날 것을 서원한다.

도필선 기자

진각사회봉사단 발족

법률·간병 등 생활속 보살행 실천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사장 성초)은 16일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생활속의 보살행을 실천할 전문봉사단인 진각사회봉사단 발단식을 가졌다. 봉사요원 50여명과 복지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단식에서 성초 이사장은 “봉사단의 정식 발족으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봉사를 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봉사단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진각사회봉사단은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직봉사단 △간병, 목욕, 이·미용 기능보유자 등 기능직봉사단 △대학생봉사단 △청소년봉사단 △국제자원봉사단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며 계속 봉사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02)942-0144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 16일 발단식을 가진 진각사회봉사단.

강남한방병원 내달 1일 개원

동국대 한의대 부속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한방병원(원장 이원철)이 11월 1일 개원한다. 강남한방병원은 내지 319평에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건물로 약사여과실을 병 안할 법당, 세미나실, 진료실과 20실의 병실을 갖추고 있다. 강남한방병원은 한·양방 협진, 한·양방 종합검진센터, 수도권 지역 300여 동문 한의과의 진료 특 체 체계 구축 등으로 병원을 특 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양방 협진 체제를 위해 가정의학과, 진

단방사선과 교수를 물색 중이다.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등 이고 내년 3월까지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후과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원철 원장은 “전국적으로 인 정반은 병원이 되려면 전문화된 치료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알리지와 장수센터를 특성화하려고 계획 중이다”며 “조계종 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계 종단에 소속 된 스님은 20%. 신도증을 가진 신도들은 10%에 한해 병원비를 할인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02)3416-9700 김지연 기자

유마선원 토요일수련회

불교수행의 정수를 알고 싶으신가요?
→ 여기 **금강경 공관법**이 있습니다.

- 수련지: 유마선원장 저택 이계열 법사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교통편: 유마선원 전철 - 3호선 화정역 1번출구 덕양우체국 앞 버스 - 신촌 92(좌), 영등포28(좌), 서울역 97(좌)
- 문 의: 0344-967-9122

5기 불교귀농학교 개설

11월12일부터 한달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11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층 강의실에서 한달간 제5기 불교귀농학교를 개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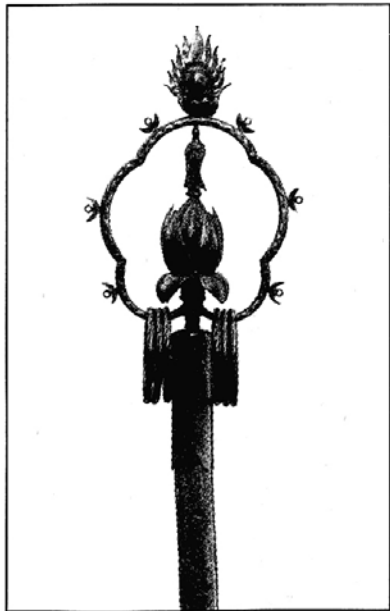
한명우 기자

이번 귀농학교는

도법스님의 ‘인드라망 세계관과 삶의 철학’, 김종숙교수(한국농업전문학교)의 ‘환경농업의 개념과 필요성’, 이병철씨(전국귀농운동본부 본부장)의 ‘어떻게 귀농을 준비할 것인가’ 등 모두 14개의 강의로 진행된다. (02)723-1884

육환장 소리 떨그렁 떨그렁... 시방세계 꽃이 피네

사원전통 수공예2 소나무전



원목차상 날개 달린 나비는 이 꽃 지 꽃을 날아 잠깐의 허기를 채우지만 뿌리나린 꽃은 영원을 이룰 씨앗을 얻습니다. 우리네 삶도 꽃처럼 여유있게 살고 싶지만 내버려둔 부추듯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인생을 하늘을 보듯살까 이렇게 까지 살아야 하는가 싶으면서도 어제를 벗어내지 못하는 날 차한전의 여유를 가져 보십시오.

“같은 깊이면 분위기라고 하는데, 백두대간 소나무(육송·적송·젓나무·진나무 낙엽송)를 띄우면 두 통하게 만든 원목차상은 활력과 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또한 100여 년 생 소나무뿌리를 자연 그대로를 살린 우담발차 차상은 긴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송진물통 소나무는 건강·장수·길상의 상징인 바·高·充이란 뜻의 「송」 배달거리의 松木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송진과 송화기루·송차 등을 중심으로 만병통치의 삼국 약재로 써 왔습니다. 소나무는 죽어서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않고 혹처져 걸 위에 기러같이 그 자체가 「꽃」이라 불리는 송진입니다.

솔향꽃이 十長生木인 소나무 송진목(50년 이상된 소나무) 죽어 20년쯤되면 「송진목이 원」으로 만든 솔향꽃이는 천연향이 살균제 공기청정제로 여겨 할 것이다. 더불어 자연의 의미와 재능의 향기가 천년세월 한결같은 것이다.

◆모시는 글 빛 바랜 단청이 고요를 지키는 작은 암자의 한 정 구름이고 싶은 계절, 행복 하였습니다! 최고만이 살아남는 지구촌, 반만년 슬기와 경험이 축적되어 「인류의 보배」인 우리 문화, 황토방처럼 제 인식되는 것도 있지만 權記처럼 없애고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지구의 원주 심장 한국, 수 천 번의 외세침임을 이겨내고 대륙을 호령했던 權君神의 한민족, 그 광력의 원천 숲! 오곡백과를 대채한 식량이자 약재·수행·건축재였는데, 우주가 靄靄된 靈木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장수는 생명체의 화두, 인류의 영원한 동행은 자연, 神이 떠오르는 壽福의 체현 소 나무, 그 진골은 巨松이 죽어 수 십 년 발효된 송뿌리 기름(松眞)인데, 소백산(백두대간 중심지)송진 목으로 手作業한 禪師秘傳 「송진 생활용품」을 인연합니다. 「발해의 기상」을 바라며, 활기넘치는 여유, 향기 그윽한 「어바부부 숲」로 늘 푸른 남들을 초대합니다. 가을 빛처럼 자유롭길 기원드립니다.

■주장자 : 정법과 깨침의 상징이다. 백두대간 깊은 골짜기에서 채취된 자연목의 원형을 그대로 실려 특수건조해 휘거나 썩지 않음.

육환장 연구원 비구 학림 합장

일시: 불기2543년 10월 25일(월) - 10월 31일(일)
장소: 부산 태화비하점 원양음 전시관(지하철 서면역)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육환장 연구원
후원: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불교선도회, 대한불교선문사
문의: 0584-653-6788, 011-888-1118

■육환장 : 구세구난, 법계의 상징물, 고려 불화를 모본으로 제작, 108개 한정제작해 법의 상징으로 함. 머리부분은 청동재로로 정입하고 몸체는 자연목 그대로 사용했다.